

최원준 “외야가 딱이야”



KIA 타이거즈 최원준이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나스에서 진행되는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홈에 들어오고 있다. /플로리다=김여울 기자 wool@



입단 5년차... 타격·빠른 발 강점
매 경기 수비 포지션 변경에
자리 못잡고 활약·부진 반복

맷 감독, 이창진 부상에 증견수 낙점
‘베이비 초이’로 부르며 기대감

최, 기동성 위해 몇달새 10kg 감량
“생각 많으니 야구 더 안풀려
과감하게 치고 뛰며 장점 살릴 것”

KIA 타이거즈의 ‘기대주’ 최원준이 드디어 딱 맞는 옷을 입을까?

최원준은 지난 2016년 서울고를 졸업하고 KIA 유니폼을 입은 고졸 5년 차다. 뛰어난 타격 실력과 빠른 발로 입단 당시 팬들의 많은 기대를 받았던 최원준이

지만 지난 4년의 성과는 썩 만족스럽지 못했다.

반짝 활약과 부진이 반복됐고, 무엇보다 베테랑이 즐비한 야수진에서 설 자리가 좁았다. 매 경기 수비 포지션을 옮겨다니며 내야수도 외야수도 그렇다고 멀티플레이어도 아닌 애매한 입장이 됐다.

그러나 최원준은 이번 캠프에서 방향을 끝내고 ‘외야수’ 옷을 새로 입었다.

재치 있는 타격과 빠른 발 그리고 강한 어깨를 주목한 윌리엄스 감독은 KIA의 취약 지점이기도 한 외야에 최원준을 배치했다. 지난 시즌 중견수 자리를 책임진 이창진이 허리 부상으로 캠프에서 중도 귀국하면서 최원준이 외야 중앙에 서고 있다.

최원준은 “감독, 코치님께서 팀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외야가 잘 맞다고 하셨다”며 “마무리캠프 때도 외야 쪽에서 연습한 대로 잘된 부분이 있어서 감독, 코치님께서 장점을 살리기에 외야가 더 맞다고 말씀해주셨다. 그 말씀에 나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언급했다.

외야로 향하는 최원준의 표정은 밝다. 앞선 실패를 통해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찾았고, 거기에 맞춰 2020시즌을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 최원준이 준비하는 2020시즌의 모습이다.”

최원준은 “야구가 어려운 건 맞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단순히 내가 해오던 야구에 깊게 빠져있던 여백을 가라는 생각을 한다”며 “감독, 코치님이 해오던, 잘하던 야구가 있다고 그쪽으로 편하게 빠져들라고 하셔서 시합 때도 주루플레이어나 수비 송구 이런 게 잘 되고 과감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신인 때 그냥 공을 보고 자신 있게 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어린 선수이다 보니까 자제 받은 것도

있고 괜히 눈치 본 것도 있다. 그동안 많이 소심해진 것 같다”며 “학교 다닐 때 생각나는 대로 뛰고, 치고, 던지고 이랬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머뭇머뭇하다 보니까 내 장점이 사라졌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단점이 아닌 장점에 집중한 최원준은 마음은 물론 몸도 신인 시절로 되돌았다. 휴식기에 6kg을 감량한 최원준은 캠프에서도 4kg 정도를 더 줄였다. 개인은 물론 팀에서도 가장 필요한 기동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다. 주자로 나가서 열심히 그라운드를 누벼야 하는 최원준은 외야에서도 폭넓은 수비 범위를 소화하면서 선배들의 수비 부담을 최소화해 줘야 한다.

최원준은 “프로에 오면서 몸이 커지고 근육량도 늘고 신인 때 말랐던 몸보다 좋아진 것은 확실한데 작년 시즌에 살이 너무 많이 찼다. 빠르게 뛰고 하려면 제일 빨랐을 때 몸 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비시즌 때부터 준비했다”며 “먹는 것 위주로 독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머리와 몸을 비운 최원준은 윌리엄스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은 캠프 우등생 중 하나다. 윌리엄스 감독은 ‘베이비 초이’로 최원준을 부르며 ‘빅 초이’ 최원준과 함께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최원준도 기회의 시즌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다.

최원준은 “작년에 너무 못하다 보니까 많이 경험도 되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된 것 같다”며 “중견수는 내야의 유격수 같은 것이다. (코너에) 터커, (나)지안, (최)형우 선배는 장타자로 방망이에 더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고, 형들보다는 내가 어리고 뛰는 데 장점이 있으니까 수비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겠다. 자신 있게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wool@kwangju.co.kr

황희찬, 후반전만 뛰어도 2골

오스트리아리그서 멀티골

오스트리아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레드불 잘츠부르크에서 뛰는 황희찬이 후반만 뛰고도 ‘멀티 골’을 폭발했으나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황희찬은 3일 오스트리아 알타흐의 카시포 인트 아레나에서 열린 알타흐와의 2019-2020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2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17분과 39분 득점포를 가동했다.

황희찬의 이번 시즌 전체 11·12호 골, 리그만 따지면 7·8호 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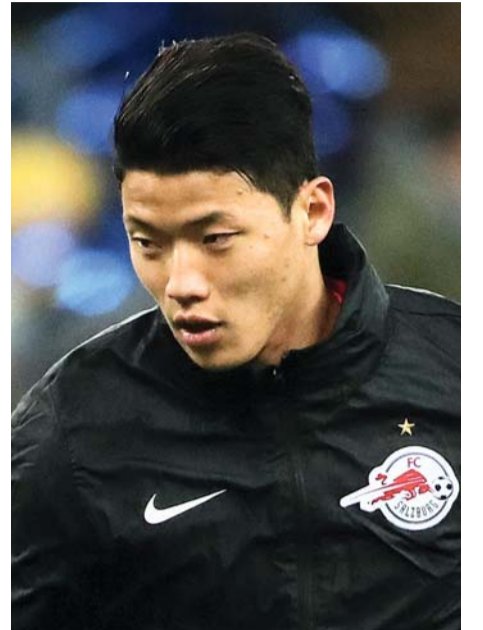
멀티 골은 지난해 8월 말 아드미라와의 리그 5라운드 이후 이번 시즌 두 번째다.

황희찬은 0-2로 뒤진 가운데 한 골, 1-3으로 끌려갈 때 다시 한 골을 터뜨려 추격의 불씨를 피웠으나 잘츠부르크는 2-3으로 패했다.

최근 리그에서 2무 2패에 그친 잘츠부르크는 2위(승점 45)에 자리해 리그 7년 연속 우승 도전의 고비를 맞았다. 선두 LASK 린츠(승점 51)와는 승점 6 차이다.

프랑크푸르트전에서 폴타임을 소화했던 황희찬은 이날 경기를 벤치에서 시작했다.

황희찬과 맷슨 다카 대신 메르김 베리사, 세쿠 코이타를 투입으로 세운 잘츠부르크는 전반 36분 시드니 샘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전반을 0-1로 밀리자 후반전을 시작하며 황희찬과 다카를 교체 투입해 반격을 노렸다.



하지만 후반 7분 샘에게 한 골을 더 내줘 열세는 이어졌다.

황희찬은 후반 17분 해결사로 나섰다.

오른쪽 측면에서 다카가 올린 크로스를 오른쪽 슛으로 연결해 만회 골을 넣었다. 그러나 잘츠부르크는 후반 35분 안 츠비첸브루거에게 한 골을 더 내줘 패색이 짙어졌다. 4분 뒤 황희찬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 파르카스의 패스를 밀어 넣어 다시 쫓아갔지만, 끝내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 /연합뉴스

이청용, 11년만에 K리그 복귀

울산 현대와 3년 계약

이청용(32)이 울산 현대 유니폼을 입고 11년 만에 한국프로축구 K리그로 돌아왔다. 울산은 3일 오후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청용을 구단 최고 대우로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울산은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공개하지 않은 채 이청용이 구단 최고 대우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3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이적을 위해 2일 독일에서 귀국한 이청용은 “우승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진 울산 현대에 와서 기쁘다. 설레는 마음으로 K리그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다. 구단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줘서 입단을 결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축구선수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 FC서울과 팬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면서 “이젠 울산 선수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이번 겨울 이적시장에서 국내 최고의 미드필더 윤빛가람을 영입하며 중원을 강화한 울산은 이청용의 영입으로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국내 최고의 자원을 갖추게 됐다.



이청용은 국가대표로 두 차례 월드컵(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2014년 브라질) 본선을 뛰는 등 A매치 89경기에 출전해 9골을 터트린 베테랑 원이다.

2004년 FC서울에서 프로에 데뷔한 이청용은 2009년 잉글랜드 볼턴 원더러스에 입단해 유럽 무대로 진출했다. /연합뉴스

김광현, 6일로 등판 연기

사타구니 통증...부상 방지 차원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가벼운 사타구니 통증 탓에 선발 등판을 한 차례 연기했다.

MLB닷컴은 3일 “김광현은 미네소타 트윈스전에 등판하지 않고 볼펜피칭을 대체한다. 가벼운 부상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가벼운 수준의 통증이다. 트레이닝 파트에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3일에는 등판하지 않는 것”을 권했다”고 밝혔다.

애초 김광현은 3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미네소타전에 선발 등판해 ‘3이닝, 공 50개’를 소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타구니 통증으로 등판을 미뤘다.

김광현은 지난달 27일 마이애미 말린스와 의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2이닝 무피안타 무실점 3탈삼진의 완벽투를 펼친 뒤 가벼운 통증을 느꼈고, 3일 등판 여부를 고민했다. 상태가 좋아져 등판 예고까지 했지만, 트레이닝 파트에서 등판 연기를 권했다.

선발 경쟁을 펼치는 김광현은 2경기 3이닝 무피안타 무실점 5탈삼진으로 호투하는 동안 다소 긴장했고, 통증도 생겼다.



그러나 긴 휴식이 필요하지는 않다.

MLB닷컴은 “김광현은 3일 볼펜피칭을 한 뒤,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6일에 선발로 등판한다”고 밝혔다.

세인트루이스는 6일 팀을 두 개로 나눠 뉴욕 메츠, 워싱턴 내셔널스와 경기를 치른다. 김광현이 어느 팀을 상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